

고흥에 우주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

이노스페이스, 3만3348㎡ 부지에 종합시험장 준공
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민간 우주산업시대 개막

전남도는 22일 고흥읍 포두면에서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주)이노스페이스가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개최, 민간 우주산업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준공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박재성 우주항공청 국장 등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민간 우주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한 이노스페이스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고흥 종합시험장은 3만3348㎡ 부지에 총 253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주도의 발사체 시험 인프라로 25급 하이브리드, 36급 액체(메탄) 등 추진기관 연소시험시설, 발사대 기능 및 단조립·단인증 시험시설 등이 포함된다.

종합시험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노스페

이스는 향후 상업발사를 위한 다양한 발사 시험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한빛-TLV’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하반기 위성 5개를 탑재한 ‘한빛-나노’의 첫 상업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남도와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한 이노스페이스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부지가 조성되면 소형발사체 제작·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 입수도 계획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노스페이스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과 혁신으로 증명한 기업으로 기술 자립을 넘어, 상업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세계적 민간 우주기업으로 도약하리라 확신한다”

며 “전남도는 이노스페이스가 ‘K-우주 챔피언’으로 성장해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르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우주청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고 있다.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민간발사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술사업화센터, 복합우주센터,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 등 다양한 발사장 인프라를 갖춘 제2우주센터도 고흥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고흥 포두면에서 열린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삭힘 미학’ 나주 영산포서 남도 미식 대향연

23~25일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600년 전통을 이어온 삭힘의 미학, 남도 잔칫상 대표 음식인 숙성 홍어와 명품 나주 한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이번 주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포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가 열린다.

영산포 홍어 축제는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다.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삭힘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숙성 홍어와 더불어 최상급 육질



홍어밥상

과 신선도를 자랑하는 나주산 소고기를 전국 미식가에게 선보인다.

특히 3일간 행사장 홍어 판매 부스에선 50% 할인된 가격에 숙성홍어를, 30% 할인된 가격에 나주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근 홍어의 거리 상가를 방문하면 할인된 가격에 숙성 홍어를 맛볼 수 있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홍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회뿐만 아니라 찜, 전, 무침, 홍어 간을 끓인 애국, 막걸리를 곁든 홍탁 등 집밥을 자극하는 홍어 요리를 종류별로 느낄 수 있다.

영산포 숙성 홍어는 600년의 오랜 전통과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삭힘 홍어의 역사와 유래는 홍어 맛과 요리만큼이나 독특하고 다양한 설이 전해져온다.

마지막날인 25일 밤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시민 우선 예약제 운영

광양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시민 우선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일부 숙박시설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선 예약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예약제 대상 객실과 이용기간은 숲속의 집 (5실), 캐빈하우스 (3실), 종합 숙박동 (4실), 산림문화휴양관 (5실), 카라반 (1실) 등 총 18실이며 휴가철인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는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게 된다.

심현우 광양시 휴양림과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in@gwangnam.co.kr



여수, 119t 다목적 어업지도선 용골저치식

여수시는 최근 신안군에 위치한 영창중공업(주)에서 용골저치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용골저치식은 선수에서 선미까지 바닥을 받치는 중심 뼈대인 용골을 놓는 과정으로, 미리 만든 선체 블록을 도크(바다에 띄우는 대형 구조물)에 얹혀 선박의 본격

적인 건조 시작을 알리는 공정이다.

시는 99억원을 들여 최대 30명까지 승선 가능한 119t 규모의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 중이다. 선박 내부에는 3047마력 디젤엔진 2기가 탑재되며, 워터제트 추진방식을 적용해 평균속력은 25노트(시속 46km)에 달한다.

여수=송원기 기자

전남도,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 ‘속도’

전남도는 전북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공모에 선정돼 해상풍력 등 수요에 선제 대응할 에너지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8개 대학(목포대, 순천대, 한국에너지공과대, 동신대, 전북대, 전주대, 전남대, 조선대)과 2개 지역 혁신 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 전북 T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6년간

국비 145억원, 지방비 34억8000만원 등

약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사업은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에너지 등 3대 분야로 구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운용과 관련 기술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지자체-대학-기업-혁신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이 호남권에 정착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

농어촌수도 해남
Agri Art Capital Haenam

30th 광남일보
30th anniversary

지친 일상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은 해남처럼

